

“부울경·충청권 등과 ‘초광역 협력’ 지역 불균형 극복해야”

광주전남연구원 31주년 토론회... 지역발전전략 모색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주력산업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광주·전남이 호남권 및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과의 권역을 넘어선 초광역 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초광역 협력사업을 국가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원은 지난 30일 오전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개원 31주년을 맞아 지역주도의 초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역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연구원·광주시·전남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지역발전전략의 동향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화 추세에 대응해 대도시와 주

변지역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초광역적 연결 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공간계획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의 통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공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우람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발전전략’ 주제발표에서 “미래 에너지, 차세대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등 광주·전남의 강점분야와 미래 산업전망을 고려한 대표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코어산업으로 1차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선 전 국토연구원장인 박양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장,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철승 광주지역사업평가단 단장, 김기홍 전남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장이 지정토론회자로 나섰다.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장은 “초광역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관광, 인프라 등 각 분야에 매년 1개 사업, 1개 초광역권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의 경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시야를 넓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글로벌 포지셔닝 분석을 통

해 광주·전남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은 ““초광역권” 용어에 더욱 적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나아가 남해안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북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등과 연계를 통해 권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 시·도의회에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 형성을 통해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소통콘텐츠 대상, 광박이팀 ‘광주로갈래’



‘2022 소통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 모습.

어린이·청소년 대상 변서연 본선진출 16개 팀 수상

광주시는 “시민이 발견한 광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뽑는 ‘2022 소통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부문 대상은 광박이팀의 ‘광주로갈래’, 어린이·청소년부문 대상은 변서연 학생의 ‘광주의 용감한 수호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진정한 광주다움의 발견, 광주의 MBTI’라는 주제로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는 광주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만든 우수한 영상콘텐츠를 선정하고 시 대표 홍보매체 등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26일까지 광주다움을 영상으로 표현한 총 38건을 접수받았으며, 예심을 거쳐 본선에서는 현장 전문가심사단과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한 청중심사단 100명이 공개경연 등을 실시간 평가했다.

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박이팀의 ‘광주로갈래’는 광주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광주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광주의 다양함을 알린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청소년부문 대상을 차지한 변서연 학생의 ‘광주의 용감한 수호자’는 광주의 진정한 수호자는 광주시민이라는 내용을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우수상은 일반부문에는 E311팀의 ‘광주를 달린다’와 소꼬미팀의 ‘광주를 보다’, 어린이·청소년 부문에는 윤시스터즈팀의 ‘광주의 MBTI’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제일기획 사장상 등 표창과 함께 일반부문 대상 500만원, 어린이·청소년부문 대상 300만원의 시상금 등이 수여됐다.

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변화를 유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광주를 위한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누구나 집’ 속도 낸다 민간사업자 우미건설 선정

광주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누구나 집’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남구 에너지밸리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우선 협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최고 19층, 14개 동, 59㎡ 441세대·84㎡ 321세대 등 모두 762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누구나 집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살고 나서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임대 의무기간(10년) 종료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 모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내년부터 농민수당 60만원 추진

상반기 지급 목표

광주시에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 도입 절차를 밟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 지급 기준·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부담하겠다고 자치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사, 농민, 참여 등 이른바 3대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는 일단 전례가 드문 가사·참여 수당 추진에 앞서 농민수당 도입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광주지역 농민은 3만5000명, 농업경영체는 2만 80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농민들이 반발해 왔다.

조례 상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농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시장개척단, 193만달러 수출계약

베트남·말레이시아 파견 15개 회사 참여 21건 결실

전남도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93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시장개척단은 농수산식품기업 9개, 화장품 등 공산품 6개 회사가 참여해 1일까지 6일 동안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참가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수요와 해외 수입기업의 신제품 발굴 수요가 충족되면서 총 21건 193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결실을 봤다.

베트남에서는 경향산업, 네이처퓨어코리아, 다시마전복수산, 듀얼라이프, 디에이치바이오사이언스,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바다손애, 좋은영농조합법인, 지너스인터내셔널, 해남고구마협동

조합, 해농 등이 19건 186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말레이시아에선 지너스인터내셔널, 바다손애 등이 2건 7만 달러 수출 기회를 잡았다.

이 밖에도 완도물산, 논다, 릴테크, 디엔터 등이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해 72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둬으로써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이치범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상담회장을 방문해 참가기업들의 수출상품을 살펴보고 말레이시아 시장진출 가능성을 조언해 주기도 했다. 박영식 전남도 국제관계 대사는 “전쟁, 환율 상승 등 수출 대외여건 불안은 수출시장이 단조로운 국가에 큰 위협이 된다”며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과 소비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2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10.8.토 ~ 10.16.일 장성 황룡강 일원

3년의 기다림... 다시 시작된 설렘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